

세계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소니 등 일본전자업체 시장참여

NEC, 마쓰시다, 소니, 도시바 등 일본의 전자업체들이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의 주요 부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첨단전자시장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NEC는 미쓰이물산, 유아세祉와 공동으로 10월부터 캐나다에서 차세대전지로 부상하고 있는 리튬전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들 회사는 지난 90년부터 현지업체를 매수, 「모리에너지 1990」을 설립하고 리튬전지의 개발을 서둘러왔으며 최근 상품화에 성공했다.

연간 생산량은 최근에는 월 20만개이며 95년도부터 1백만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튬전지는 종래의 닛카드 전지에 비해 두 배의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전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이는 멀티미디어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3종의 신기」로 불리고 있고 이에 따라 2천년대 시장규모는 3천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마쓰시다전지공업, 산요전기가 올해 3월과 4월에 신규로 참여했으며 선발주자인 소니(91년 7월)와 에이디 밧데리(도시바와 도시바전지, 아사히화성의 합작회사)도 증산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도시바 전

지는 미국전자업체의 최대업체인 듀라셀 및 독일업체인 활타사와 공동으로 96년부터 차세대전지인 니켈수소 2차전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연간 생산량은 1억개로 세계 수요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리튬전지 및 니켈수소 2차전지 등은 휴대용 전자기기 등 멀티미디어 기기의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급속한 판매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리튬전지 참여업체 현황

업 체	참여시기	투자계획	생산목표(月)
소 니	91년 7월	미공표	94년말 20만개 95년 300만개
에 이 디 밧 데 리	93년 4월	97년까지 150억엔	94년말 160만개
산 요 전 기	94년 4월	매년 50억~60억엔	94년말 100만개
마 쓰 시 타 전 지	94년 3월	95년까지 140억엔	94년말 100만개
모 리 에 너 지 1990	94년 10월	초기 30억~40억엔	95년중 100만개

신간안내

註解 特許法 (上)

신국판, 708면, 22,000원

편저: 中山信弘(동경대학교수), 공역: 정완섭 외 8인